

EU, 구제역 조기경보체제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제역(Food-and-Mouth Disease, FMD) 근절을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럽지부에 450만€를 제공했다. 2005년 9월 1일 유럽공동체와 FAO는 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다. 유럽공동체 프로젝트는 유럽 외부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란, 이라크, 터키, 코카서스 지방과 같은 인접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소, 버펄로, 양, 돼지 등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우유와 고기 생산량을 격감시킬 수 있다고 FAO는 밝혔다. 유럽에서 가장 최근에 구제역이 발병한 경우는 2001년 영국 구제역 사태로 130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고, 아프리카 사하라 주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이 주요 지역이다.

FAO 구제역통제위원회(EUFMD) 집행위원인 Keith Sumption은 "이번 유럽공동체의 자금 지원으로 구제역 발생 확률이 높고 유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구제역 감시와 통제가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특히 수의학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투명하고 믿을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FAO나 국제가축보건기구(WA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Sumption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rapid response)

을 해야만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 유럽공동체의 이번 출처로 FAO는 발병 확인 후 24시간 이내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상황 분석, 기술적 지원, 추가적인 위험 요소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구제역통제위원회는 Pan-Europe 훈련과 역량 배양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단위의 대처 능력도 제고할 것이다. Sumption은 구제역이 창궐한 터키의 경우를 들었는데, 터키는 FAO와 유럽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지난 3년 동안 Bosphorus 서부 지역의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왔다. 또한 터키는 2007년부터 구제역 박멸 10개년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구제역통제위원회에는 33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구제역통제위원회의 예산은 2004년 200만€에 달했다.

출처: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